

‘출발~인천 역사 여행!’

용현여중, 자유학기 체험학습



용현여자중학교(교장 정두원)는 9월 27일 5, 6교시에 자유학기 주제선택 활동시간을 이용해 인천광역시 교육청·인천광역시 인민회의에서 주최·주관하고 있는 ‘출발~인천 역사 여행!’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학습에 참여한 1학년 학생 38명은 인천 중구 관광안내도 및

인천사랑은동시민협의회에서 발행한 ‘찾아가는 인천역사’ 청소년을 위한 인천 역사 교재를 받고 경의를 받은 후 인천 중구 지역의 근대 개항장을 중심으로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답사를 했다.

오랜만에 가을비가 내렸지만, 체험학습을 통해 직접 설명을 듣고 내고장 인천에 대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학생들은 불만 한대도 불구하고 초풍초동한 눈빛으로 열심히 해설사의 역사 이야기를 듣고 박물관의 전시자료를 살펴 보면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트 플랫폼, 개항장 박물관, 중구청(일민전시관), 정일조계사, 한중문화관, 인천개항박물관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 1학년 김모 학생은 “인

천이 개항되면서 우리나라의 물류수송을 담당하였던 곳, 금융업무 역할을 했던 일본은행, 영국영사관 등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남아있어 근대 역사와 문화를 책으로만 공부한 것보다는 직접 보고, 설명을 듣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근대역사를 많이 배우게 됐고, 친구들과 함께 답사하게 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됐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정두원 교장은 “용현여중은 앞으로도 자유학기의 다양한 주제선택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꿈을 찾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더불어 나,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자긍심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열정을 갖고 노력할 방침이다”고 계획을 밝혔다.

인용성 기자 as@

내일의 우승을 위해 다시 뛰다

인천안남중, 제46회 추계 남녀 중고 농구 연맹전 3위 입상

인천안남중학교(교장 최정규)는 제46회 추계 남녀 중고 농구 연맹전(9. 21~28, 전남 영광)에 출전해 3위에 입상했다. 2016년 마지막 대회인 추계 남녀 중고 농구연맹전에는 전국 19개의 중학교가 출전해 지난 1년간 훈련 결과와 경력을 겨루는 대회로 이전 대회의 입상 팀들이 모두 출전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자리를 겨루는 대회이다.



3학년 박승재 선수를 중심으로 한 외곽 플레이와 2학년 차민석 선수 중심의 안 골 플레이의 조화로 예전 경기에서 우수한 플레이를 펼쳤으며, 결선 경기에서 71회 전국남녀중고농구선수권대회 우승팀인 삼산중학교(서울)를 64대 44로 손쉽게 따돌리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삼일중학교(수원)와의 준결승 경기에서도 4쿼터까지 3~4점 차의 범위 내에서 일리차리차리하며 손에 땀을

끼는 경기를 펼치다 경기 후반 전력적 한계에 부딪혀 52대 58로 어렵게 아깝게 저 아쉬움을 남겼다.

비록 아쉬운 3위에 머물렀지만,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5. 28~31, 강원도)에 인천 대표로 선발됐으며, 제71회 전국남녀중고농구선수권대회(7. 25~8. 4, 전남 영광)에 이어 올해 2개의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면서 중고 농구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선수들에게도 자신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기에 2017년 더욱 강팀으로 거듭나는 안남중학교 농구부를 기대해본다.

인용성 기자 as@



인천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춤 한 자락

인천예술고, 문화 예술 프로그램 진행

인천예술고등학교(교장 심영란)에서는 지난 9월 23일 오후 정예원에서 ‘인천 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춤 한 자락’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인천시립무용단에서 준비한 다양한 한국 춤 작품을 가지

고 인천예술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공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인천시립무용단에서는 한국무용 전통작품과 창작 작품을 재구성해 공연했고 학생들에게 우리 춤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며 예술적 탐구심을 불러 일으

켰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자의 자세한 설명과 안내가 있어 한국 춤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무용단원들과 학생들은 평범하게 경험 할 수 없는 예술적 소용을 활발하게 했고 나아가 무용 감상능력과 비평능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의 장이 됐다.

인용성 기자 as@

‘이제 자녀 교육 전략 달라져야 한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과점중심 학생평가 학부모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환)은 ‘2016년 꿈과 깨울 키우는 과점중심 학생평가 학부모 연수’를 9월 29일 관내 중학교 학부모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과점 중심 평가 확대에 따른 학생 평가 내실화 및 학부모의 자녀 교육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기획됐

다.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에는 학생들이 기존 중간 기말고사 등 지필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교수 학습 활동과 연계된 자연스러운 과점 중심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학부모도 변화하는 교육과 평가의 방향 및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자녀 교육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

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자유학기, 학종, 수행평가 등 복잡한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핵심메리 공부보다 자녀에게 체험하고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겠다고 느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을 통한 미래형 학력신장을 위해 과점중심 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교원 및 학부모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얼씨구! 좋다! 신나는 우리 음악 속으로

인천동암초 어린이들 락음악악단 공연 관람

인천동암초등학교(교장 김영진)에서는 9월 29일 교육과정과 연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락음악악단’의 국악 공연을 강당에서 개최했다.

‘락음(樂音)’이라는 이름처럼 즐겁고 행복한 음악 예술을 추구하는

락음악악단의 교육 기부로 시행된 이번 공연에서는 다양한 국악기 종류 설명 및 국악기 개별 연주, 중요 연주, 창작 국악 연주, 판소리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악 공연을 관람하면서

어린이들은 우리 소리의 우수성과 소감을 생각하고 우리 음악이 주는 감동을 맞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연을 관람한 5학년의 한 어린이는 “평소에 들었던 다양한 국악기를 알 수 있게 돼 좋았다”고 했으며, 3학년의 한 어린이는 “국악기로 연주하는 민화영화 주제곡을 친구들과 함께 불렀던 것이 가장 신났고 기억에 남았다”고 말했다.

김영진 교장은 “인천동암초는 예술 감시지원사업을 통해 음악 교과 중 국악 영역을 국악전문 강사와 협력수업 하는 등 평소 어린이들이 문화 예술적 소양을 갖추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인용성 기자 as@

학교환경 청결지킴이

사회적기업(예비) 새한에이치엠입니다

주요 사업내용

- 학교청소 인력, 경비인력 파견 및 관리
- 건물 내외 청소, 바닥청소 및 코팅, 유리창 청소, 학교 대청소
- 수목소독, 모래소독, 교실(특별실)소독, 급식실소독
- 저수조 청소 및 소독, 배수로 청소, 폐기물 처리
- 냉난방기 청소, 선풍기 청소
- 급식실 후드(덕트) 및 바닥 청소
- 각종 청소용품 및 장비 납품

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97번길 14, 102호
Tel. 032-426-9399, Fax. 032-426-9397
서북지사 : Tel. 032-512-3782, Fax. 032-724-0782

Saellan